



대학생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염영희¹⁾ · 이규은²⁾

서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사람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외모지상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회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인들의 사회생활에서 외모관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듯 외모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신체상은 신체모양이나 움직임 등을 대표하는 신체적 요소와 외모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느낌, 사고, 개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요소가 있는데, 신체적 요소가 부정적이면 심리적 의미도 부정적이 되고, 심리적 요소가 부정적이면 신체적 요소도 부정적이 된다(Van Der Velde, 1985). 특히 대학생은 신체적 외모와 연관된 사회적 압력에 민감하며 대학생 시기는 신체적 자기평가를 포함하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가치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므로(Crocker & Wolfe, 2001)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실제 신체를 수용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객체화된 신체 의식이 있는데 객체화된 신체 의식이란 마치 외부 관찰자가 관찰하듯이 자기 신체를 관찰하고 이용할 객체로 보는 것으로, 이상적 신체에 대한 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대중매체의 이상적 기준에 맞추어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Gim,

Ryu, & Park, 2007). 대중매체가 이상적으로 보는 체형과 자신의 체형을 비교하면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게 되며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Moon, 2003).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강할수록 신체상에서 신체불만족 수준이 높아지며 이상적인 신체와의 괴리감이 커져 (Jung & Forbes, 2007)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체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자아존중감인데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말로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능력 있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말한다(Rosenberg, 1965). 신체존중감은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이며 지각된 운동역량, 신체적 상태, 매력 및 체중문제와 같은 구성요소에 관련되어 있고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Franzoi & Shields, 1984), 신체상불만족은 전체적인 자아존중감과 연관되어 있다(Lowery et al., 2005). Pelletier, Dion과 Levesque (2004)는 자기결정력이 있는 사람은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더 적게 지각하고, 날씬함에 대한 사회의 믿음을 덜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폭식증상도 더 적게 보고한다고 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나 외모와 관련된 문제에서 의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아름다움을 여성의 것으로 여기는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나 남성들도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신체외모를 가꾸는 것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Lim, 2005). 이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와 이상적 신체상을 구현

주요어 : 대학생, 신체상, 자아존중감

1)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lke@kd.ac.kr)

접수일: 2011년 8월 31일 수정일: 2011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10일

하기 위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Aubrey, 2004). 그간 외모 및 신체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여학생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Lee & Oh, 2003; Lee, Kim, & Yom, 2005; Gim et al., 2007) 하였으므로 남학생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날씬함과 연관되어 “규범적 불만”이 되고 있으며 신체불만족, 체중문제, 섭식문제, 신체적 매력 등은 특히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Lowery et al., 2005). 아울러 신체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신체상의 발달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연구가 필요하다(Cho, 2010).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인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자아존중감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모관리가 사회적 성공과 자아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성인초기의 남, 여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신체상 인식의 확립과 신체상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의 내용을 개발하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대상자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에 대한 의식 및 신체상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에 대한 의식 및 신체상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 대상자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에 대한 의식 및 신체상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 대상자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에 대한 의식 및 신체상의 정도를 알아보고,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도시인 S시, 중소도시인 G시 및 S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19명으로 비확률적 표출법으로 편의 추출되었다.

대상자수는 G*Power 3.0.10.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 0.10, 검정력은 0.80, 회귀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수 5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표집수가 134명 이상이 되면 예측 검정력을 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수 319명은 충분한 숫자이다.

연구 도구

●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본 연구에서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는 Heinberg, Thompson 및 Stormer (1995)가 개발한 SATAQ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Lee와 Oh (2003)가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시킨 12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Jeon (1974)이 번안한 10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4이었다.

● 신체에 대한 의식

본 연구에서 신체에 대한 의식은 McKinley와 Hyde (1996)가 OBC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을 토대로 Gim 등(2007)이 개발한 한국판 객체화 신체 의식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24문항 6점 척도로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및 통제신념의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의식(예,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및 통제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척도의 Cronbach's alpha는 .78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신체감시성(.85), 신체수치심(.80) 및 통제신념(.72)이었다.

● 신체상

본 연구에서 신체상은 Cash (1990)가 개발한 MBSRQ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를 Kang (2003)이 번역한 4개의 하위요인인 33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원래 MBSRQ는 7개의 하위요인(외모지향, 외모평가, 몸매지향, 몸매평가, 건강지향, 건강평가, 질병지향) 6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외모지향, 외모평가, 건강지향 및 건강평가의 4개의 하위요인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외시킨 몸매지향 및 몸매평가 요인은 신체에 대한 의식적도와 유사한 문항이 있었고 질병지향 요인은 본 연구대상자들이 건강한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각 문항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완전히 동의함'(5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신체상(예, 외모지향, 외모평가, 건강지향 및 건강평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한 32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신체상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0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신체적 의존성(.86), 심리적 의존성(.89) 및 사회적 의존성(.71)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대도시인 S시, 중소도시인 G시 및 S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400부를 배부하여 최종적으로 총 350부(회수율, 87.5%)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자료 중 기입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어 자료처리가 곤란한 31부를 제외한 31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의 목적과 진행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심의결과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IRB No. 11-025). 자료수집 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및 연구철회, 연구자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해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명하여 연구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측정 변수 각각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측정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é test를 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시 성별, 체중, 학년 및 전공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인 성별에서 남자는 0, 여자는 1, 전공에서는 비의학계열은 0, 의학계열(간호계열 포함)은 1의 값을 갖도록 더미(dummy)변수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를 종속변수인 신체상 각 요인에 회귀시켰고, 2단계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에 5개의 독립변수인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및 신체통제신념을 더하여 종속변수인 신체상 각 요인에 회귀시켰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신장, 체중, 성별, 학년, 종교 및 전공을 조사하였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25±2.09세, 신장은 평균 166.38±3.05cm, 체중은 59.21±12.40kg 이었다. 남학생이 3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2학년 40.4%, 1학년 29.9%, 3학년 28.8%, 4학년 1.3%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음 51.7%, 기독교 25.1%, 천주교 11.9%, 불교 9.1%, 기타 2.2%의 순이었다. 전공은 의대와 간호대 49.8%, 인문대학 28.5%, 사회과학대학 9.7%, 법과대학 6.6%, 경영경제대학과 예체능대학이 각각 1.9%, 공과대학 1.6% 이었다.

대상자의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객체화 신체 의식 및 신체상

연구대상자의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객체화 신체 의식 및 신체상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태도는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3.57±0.67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2.87±0.44점이었다. 객체화 신체 의식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신체통제신념의 3개의 하위요인이 있는데 응답범위 1~6점 사이에 신체감시성은 평균 3.98±0.79점, 신체수치심은 평균 3.41±0.87점, 신체통제신념은 평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19)

Category	Classification	N(%)	M±SD
Age (years)			20.25±2.09
Height			166.38±3.05
Weight			59.21±12.40
Gender	Male	109 (34.2)	
	Female	210 (65.8)	
Year	First	94 (29.5)	
	Second	120 (40.4)	
	Third	92 (28.8)	
	Fourth	4 (1.3)	
Religion	Protestant	80 (25.1)	
	Catholic	38 (11.9)	
	Buddhist	29 (9.1)	
	Others	7 (2.2)	
	None	165 (51.7)	
Type of college (Major)	Liberal Arts	91 (28.5)	
	Social Science	31 (9.7)	
	Business and Economics	6 (1.9)	
	Arts and Physical Education	6 (1.9)	
	Law	21 (6.6)	
	Engineering	5 (1.6)	
	Medical and Nursing	159 (49.8)	

4.12±0.73점이었다. 신체상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외모지향, 외모평가, 건강평가, 건강지향의 4개 하위요인이 있는데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외모지향 평균 3.52±0.64점, 외모평가가 평균 2.78±0.62점, 건강지향 평균 3.09±0.74점, 건강평가가 평균 3.32±0.7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elf-esteem,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Body image

Variables	Classification	Mean ±S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3.57±0.67
Self-esteem		2.87±0.44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Body surveillance	3.98±0.79
	Body shame	3.41±0.87
	Body control belief	4.12±0.73
Body image	Appearance orientation	3.52±0.64
	Appearance evaluation	2.78±0.62
	Health orientation	3.09±0.58
	Health evaluation	3.32±0.7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객체화 신체 의식 및 신체상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객체화 신체 의식 및 신체상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첫째,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t=-10.06, p<.001$), 3, 4학년과 2학년이 1학년보다($F=15.11, p<.001$),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이 비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보다($t=-8.34, p<.001$)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t=.233, p=.033$), 3, 4학년과 2학년이 1학년보다($F=7.06, p=.001$)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객체화 신체 의식의 하위영역 중 신체감시성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t=-6.03, p<.001$), 2학년이 1학년보다($F=4.82, p=.009$),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이 비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보다($t=-4.78, p<.001$) 유의하게 높았으며, 신체수치심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t=-5.20, p<.001$),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이 비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보다($t=-3.36, p=.001$)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제신념의 차이는 없었다.

넷째, 신체상의 하위영역 중 외모지향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t=-6.49, p<.001$), 2학년이 1학년보다($F=5.39, p=.005$),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이 비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보다($t=-5.41, p<.001$) 유의하게 높았으며, 건강지향은 3, 4학년이 1학년보다($F=6.38, p=.002$),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t=-2.25, p=.025$),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이 비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보다($t=-2.41, p=.016$)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평가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t=2.34, p=.020$), 2학년이 1학년보다($F=5.94, p=.003$),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이 비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보다($t=-3.33, p=.001$) 유의하게 높았으나 외모평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신체상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등간척도로 측정된 연령, 신장, 체중을 포함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외모지향은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r=.52, p<.001$), 신체감시성($r=.83, p<.001$), 신체수치감($r=.47, p<.001$)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령($r=-.15, p=.006$), 신장($r=-.27, p<.001$), 체중($r=-.29, p<.001$)간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외모평가는 연령($r=.18, p=.002$), 신장($r=.17, p=.003$), 자아존중감($r=.52, p<.001$), 신체통제신념($r=.23, p<.001$)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r=-.24, p<.001$), 신체수치감($r=-.29, p<.001$)간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건강지향은 연령($r=.25, p<.001$), 자아존중감($r=.34, p<.001$), 신체통제신념($r=.18, p=.002$)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평가는 연령($r=.24, p<.001$), 신장($r=.16, p=.005$), 자아존중감($r=.41, p<.001$), 신체통제신념($r=.24,$

Table 3.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elf-esteem,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Body imag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elf-esteem		Body surveillance		Body shame		Body control belief	
	M±SD	t/F (ρ) Scheffé	M±SD	t/F (ρ) Scheffé	M±SD	t/F (ρ) Scheffé	M±SD	t/F (ρ) Scheffé	M±SD	t/F (ρ) Scheffé
	Gender	3.11±0.59	-10.06	2.94±0.51	2.33	3.62±0.84	-6.03	3.07±0.91	-5.20	4.19±0.84
Male	3.80±0.58	(<.001)	2.82±0.39	(.033)	4.16±0.69	(<.001)	3.59±0.80	(<.001)	4.08±0.66	(.241)
Female										
School grade		15.11			3.80±0.79					
① First	3.26±0.63	(<.001)	2.73±0.45	7.06	4.13±0.79	4.82	3.32±0.93	0.87	4.00±0.82	1.50
② Second	3.66±0.66	②,③>①	2.91±0.44	(.001)	3.95±0.74	(.009)	3.48±0.87	(.420)	4.15±0.70	(.225)
③ Third & Fourth	3.73±0.63		2.94±0.40	②,③>①		② >①	3.41±0.81		4.18±0.67	
Religion	3.54±0.65	-0.80	2.89±0.43	1.08	4.00±0.80	0.47	3.37±0.83	-0.90	4.07±0.73	-1.09
Not having	3.60±0.69	(.425)	2.84±0.45	(.282)	3.95±0.77	(.642)	3.46±0.91	(.371)	4.16±0.72	(.275)
Having										
Major	3.28±0.64	-8.34	2.85±0.48	-0.50	3.77±0.78	-4.78	3.25±0.91	-3.36	4.12±0.81	0.09
Non medical & nursing	3.85±0.57	(<.001)	2.87±0.39	(.615)	4.18±0.74	(<.001)	3.58±0.80	(.001)	4.11±0.64	(.925)
Medical & nursing										

Variables	Appearance orientation		Appearance evaluation		Health orientation		Health evaluation	
	M±SD	t/F (ρ) Scheffé	M±SD	t/F (ρ) Scheffé	M±SD	t/F (ρ) Scheffé	M±SD	t/F (ρ) Scheffé
	Gender	3.21±0.66	-6.49	2.87±0.65	1.84	3.14±0.63	1.10	3.45±0.78
Male	3.68±0.57	(<.001)	2.73±0.60	(.067)	3.06±0.55	(.274)	3.25±0.71	(.020)
Female								
School grade								
First	3.35±0.58	5.39	2.68±0.61		2.94±0.54	6.38	3.11±0.71	5.94
Second	3.63±0.67	(.005)	2.80±0.62	1.64	3.08±0.61	(.002)	3.44±0.74	(.003)
Third & Fourth	3.53±0.62	② >①	2.83±0.63	(.196)	3.23±0.53	③ >①	3.36±0.72	② >①
Religion	3.52±0.67	0.15	2.79±0.60	0.50	3.01±0.57	-2.25	3.33±0.74	0.15
Not having	3.51±0.60	(.881)	2.77±0.64	(.616)	3.16±0.58	(.025)	3.31±0.74	(.880)
Having								
Major	3.33±0.63	-5.41	2.78±0.64	0.03	3.01±0.60	-2.41	3.18±0.77	-3.33
Non Medical & Nursing	3.70±0.59	(<.001)	2.77±0.60	(.975)	3.16±0.54	(.016)	3.46±0.69	(.001)
Medical & nursing								

p<.001)간 순 상관관계를, 신체수치감(r=-.18, p=.002)간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객체화 신체의식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신체상의 하위요인인 외모지향의 경우, 4개의 통제변수들만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은 외모지향의 11.6%를 설명하였으며 성별과 전공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더 외모를 지향하였으며 의/간호학계열학생이 비의/간호학계열학생보다 더 외모를 지향하였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고려한 Model 2는 외모지향의 72.3%를 설명하였으며 신체감시성(β=.74, p=<.001)과 신체수치심(β=.17, p=<.001)이 외모지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외모평가의 경우, 4개의 통제변수들만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은 외모평가의 8.7%를 설명하였으며 신장과 체중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신장이 클수록 체중이 덜 나갈수록 외모평가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고려한 Model 2는 외모평가의 33.5%를 설명하였으

며 신장과 체중 외에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beta=-.18$, $p=.011$)와 자아존중감($\beta=.43$, $p<.001$)이 외모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건강지향의 경우, 4개의 통제변수들만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은 외모지향의 5.1%를 설명하였으며 체중과 전공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체중이 덜 나갈수록 건강을 더 지향하였으며 의간호학계열 학생이 비의간호학계열 학생보다 건강을 더 지향하였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고려한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1	1											
2	.12 (.041)	1										
3	.05 (.335)	.73 ($<.001$)	1									
4	.06 (.311)	-.40 ($<.001$)	-.32 ($<.001$)	1								
5	.20 ($<.001$)	.14 (.020)	.07 (.190)	-.13 (.026)	1							
6	-.15 (.009)	-.25 ($<.001$)	-.26 ($<.001$)	.55 ($<.001$)	-.08 (.179)	1						
7	-.14 (.016)	-.22 ($<.001$)	-.08 (.139)	.52 ($<.001$)	-.24 ($<.001$)	.40 ($<.001$)	1					
8	.13 (.024)	.09 (.102)	.11 (.061)	-.10 (.078)	.39 ($<.001$)	-.01 (.929)	-.13 (.025)	1				
9	-.15 (.006)	-.27 ($<.001$)	-.29 ($<.001$)	.52 ($<.001$)	-.06 (.336)	.83 ($<.001$)	.47 ($<.001$)	-.03 (.631)	1			
10	.18 (.002)	.17 (.003)	-.04 (.461)	-.24 ($<.001$)	.52 ($<.001$)	-.06 (.295)	-.29 ($<.001$)	.23 ($<.001$)	-.03 (.550)	1		
11	.25 ($<.001$)	.09 (.097)	-.01 (.858)	.01 (.872)	.34 ($<.001$)	-.05 (.351)	-.02 (.670)	.18 (.002)	.04 (.538)	.42 ($<.001$)	1	
12	.24 ($<.001$)	.16 (.005)	.11 (.053)	-.08 (.163)	.41 ($<.001$)	-.04 (.440)	-.18 (.002)	.24 ($<.001$)	-.06 (.322)	.35 ($<.001$)	.45 ($<.001$)	1

1=Age; 2=Height; 3=Weight; 4=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5=Self-esteem; 6=Body surveillance; 7=Body shame; 8= Body control belief; 9=Appearance orientation; 10=Appearance evaluation; 11=Health orientation; 12=Health evaluation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for Appearance orientation, Appearance evaluation, Health orientation and Health evaluation

Variable	Appearance orientation		Appearance evaluation		Health orientation		Health evaluation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Control variable									
Height	.09 (.344)	.04 (.447)	.41 ($<.001$)	-.35 ($<.001$)	.20 (.050)	.17 (.074)	.16 (.101)	.11 (.235)	
Weight	-.06 (.487)	-.09 (.083)	-.40 ($<.001$)	-.29 ($<.001$)	-.19 (.032)	-.21 (.017)	-.02 (.846)	.05 (.587)	
Gender	.29 (.006)	.00 (.970)	-.07 (.503)	.10 (.304)	-.17 (.107)	-.17 (.107)	-.20 (.062)	-.10 (.322)	
Major	.15 (.027)	.01 (.850)	.04 (.538)	.05 (.416)	.21 (.002)	.17 (.010)	.34 ($<.001$)	.32 ($<.001$)	
Independent variabl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02 (.629)		-.18 (.011)		.11 (.175)		-.02(.788)	
Self-esteem		.07 (.060)		.43 ($<.001$)		.31 ($<.001$)		.32 ($<.001$)	
Body surveillance		.74 ($<.001$)		-.10 (.082)		-.13 (.049)			
Body shame		.17 ($<.001$)		.08 (.163)		.10 (.151)			
Control belief		-.00 (.894)		.04 (.434)		.08 (.179)			
F	10.43	84.53	7.83	17.09	4.94	7.10	8.94	10.82	
(p)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R ²	.128	.732	.099	.355	.064	.185	.111	.257	
Adjusted R ²	.116	.723	.087	.335	.051	.159	.098	.233	

* Dummy variable: gender (0=male; 1=female), major (0=non medical and nursing; 1=medical and nursing).

Model 2는 건강지향의 15.9%를 설명하였으며 체중과 전공 외에 자아존중감($\beta=.31, p<.001$)과 신체감시성($\beta=-.13, p=.049$)이 건강지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건강평가의 경우, 4개의 통제변수들만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은 건강평가의 9.8%를 설명하였으며 전공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의간호학계열 학생이 비의간호학계열 학생보다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고려한 Model 2는 건강평가의 23.3%를 설명하였으며 전공 외에 자아존중감($\beta=.32, p<.001$)이 건강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상의 정도와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MBSRQ는 외모지향, 외모평가, 몸매지향, 몸매평가, 건강지향, 건강평가, 질병지향의 7개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모지향, 외모평가, 건강지향 및 건강평가의 4개의 하위요인만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신체상 하위영역 중 외모지향은 평균 3.52 ± 0.64 점으로 중간보다 높았으며, 외모평가는 평균 2.78 ± 0.62 점으로 중간정도였고, 건강평가는 평균 3.32 ± 0.74 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았으며, 건강지향 평균 3.09 ± 0.74 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한 선행연구가 드물어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고등학교 1학년 631명을 대상으로 한 Jung (2010)의 연구를 보면 외모지향은 39.82점(12 문항), 외모평가 12.17점(5문항)으로 점수를 문항으로 환산한 결과 외모지향 3.31점, 외모평가 2.43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다.

신체상의 각 하위영역과 나머지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외모지향은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감시성, 신체수치감간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남, 여 학생 9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Hyeon (2007)의 연구에서 외모지향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비교 간 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비슷하였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지향과 외모복플렉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Kang (2003)의 연구결과 외모지향이 외모복플렉스와 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Cash (1990)는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신체상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의해 여성의 매력은 날씬함이 중요한 요소로 지목된다고 하여 외모에 대한 지각에 사회문화적 영향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모평가는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간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외모복플렉스와 외모평가 간 역 상관관계(Kang, 2003)를 보인 것과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였다(Moon, 2003)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즉,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시킬수록 외모에 많은 관심을 기울게 되어, 자신의 신체상을 이상화된 신체상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 기준과의 차이 때문에 결국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않게 된다. 한편 외모평가는 자아존중감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외모평가가 일반적 자아,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 자아존중감의 전 영역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내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긍정적일 때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한 Hyeon (2007)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외모평가는 신체통제신념 간 순 상관관계를 보여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잘 통제한다고 믿을수록 외모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건강지향과 건강평가는 건강에 대해 지각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신체가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한 느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결과 건강지향과 건강평가는 자아존중감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Kim (2007)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자아존중감 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건강하다고 느끼거나 건강관련 행위를 많이 할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강지향과 건강평가는 신체통제신념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건강에 대해 지각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건강할수록 자신의 외모를 잘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평가는 신체수치감간 역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자신의 신체에 대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자신의 신체를 열등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는 평균 3.57 ± 0.67 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663명의 남, 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im (2009)은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도구를 요인분석 하여 미기준의 내면화 요인과 외모의 중요성 인식요인의 2개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이를 연구대상자들에게 조사한 결과 미기준의 내면화 요인 3.32 ± 0.90 점, 외모의 중요성 인식 요인 4.00 ± 0.70 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감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Kim (2006)은 사회문화적 압력이 여성의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날씬하고 아름다워지도록 요구하는 사회문화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감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역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외모지향성과 일반적 자아존중감간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Hyeon (200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Moon (2003)도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화 변수가 신체자존감과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성별과 관련하여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보다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감시성, 신체수치감, 외모지향 점수가 높았다. 외모는 성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한 부분인데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자신의 신체외모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외적 이미지를 가꾸도록 사회화 되어왔다(Ko & Chung, 1992). 사회화에 큰 역할을 한 대중매체의 이상적인 신체매력에 대한 가치기준은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외모를 감시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신체외모가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신체수치감을 가지게 된다. Kim (2006)의 연구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문화적 압력, 대상자 및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Lim (2009)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 점수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Gillen과 Lefkowitz (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성별 간 신체상에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이 외모에 대해 더 많이 지각하고 덜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덜 만족한다고 하였다.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BMI가 유의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성들에게서 외모에 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Watkins, Christie와 Chally (2008)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들도 체중과 체형에 따라 신체상의 차이를 보였고 특히 BMI와 신체상 간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면서 저체중군, 과체중군 및 비만군은 정상체중군보다 신체불만족 정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이는 남자 대학생들도 체형이나 체중에 따라 신체상이 변화함을 시사한다. Bergstrom과 Neighbors (2006)는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상 장애는 체중과 근육질과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들의 신체불만족은 여성들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Jung (2010)의 연구에서는 신체상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는 달랐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한창 대중매체에 민감한 고등학교 1학년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최근 국내에서는 과거에 여성의 전용물로 여겨졌던 다이어트 혹은 몸매 가꾸기가 연예인은 물론 대중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 남성들에게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고 연령에 따라 남성들의 신

체상 변화를 중단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Jeon과 Bae (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Kim (2007)의 연구와는 달랐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이나 표집 시점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대규모 표집을 통한 성별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대학생의 신체상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와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및 객체화 신체외모의식은 외모지향 변이의 72.3%를, 외모평가 변이의 33.5%, 건강지향 변이의 15.9%, 건강평가 변이의 23.3%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려우나 Jung (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애, 가족탄력성 및 완벽주의가 청소년의 신체상을 16% 설명하였고, Moon (2003)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화, 공격 자기 의식 및 BMI가 여대생의 신체왜곡증상의 37%를 설명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외모와 관련된 신체상의 설명력이 높았으나 건강관련요인의 설명력은 낮았으므로 추후 건강관련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4개의 통제변수만 고려할 때 외모지향은 성별만이, 외모평가는 신장과 체중, 건강지향은 신장과 체중, 건강평가는 전공이 영향을 미쳤다. 외모지향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를 더 지향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외모평가에서는 신장과 체중이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키가 더 클수록 체중은 덜 나갈수록 외모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였다고 본다. 또한 건강지향에서 체중과 신장을 고려하여 건강여부를 지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건강평가에서는 전공이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이 타 전공 학생들보다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Jo (200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수준은 보통이나 사회적 건강수준은 높게 나타났고 3학년 간호대학생이 1학년 간호대학생보다 사회적 건강이 유의하게 높아 임상과 지역사회를 통한 실습교육의 효과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즉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이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더 좋다고 지각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건강지향에서도 전공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 것을 볼 때,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이 전공의 특성상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 자연스럽게 타 전공학생들에 비해 건강을 더 지향한다고 사료된다. 대학생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외모지향에서는 신체감시성과 수치감이, 외모평가에서는 신장, 체중,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

중이, 건강지향에서는 체중, 전공, 자아존중감, 신체감시성이, 건강평가에서는 전공,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대학생의 신체상 4가지 하위영역 중 외모지향을 제외하고 외모평가, 건강지향 및 건강평가의 3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력이 있는 변수가 자아존중감이었는데,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Hyeon, 2007; Lowery et al., 2005)의 결과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신체상의 하위영역에 따라 각각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신체상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신체상의 여러 영역의 영향요인을 세분화시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신체상 관련 연구들이 주로 여자 청소년, 여대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반해 본 연구는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 표집 시 3개 시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서 표집 했으나 편의표집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고, 둘째, 조사당시 한 시점에서만 자료를 수집한 횡단적 연구이므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신체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셋째,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MBSRQ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척도 중 4가지의 영역만을 선별하여 측정했다는 점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신체상의 정도와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외모와 관련하여 외모에 대해 만족하기보다 외모가 어떻게 보여 지는가에 더 관심이 많았고,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하게 살기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은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건강지향과 건강 평가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통제신념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외모지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신장이 작을수록,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감시성 및 신체수치감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 반면 외모에 대한 평가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장이 클수록, 자아존중감과 신체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수치감이 낮을수록 외모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외모지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감이,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고, 건강지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신체감시성이, 건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지향 영역을 제외한 외모평가, 건강지향, 건강평가의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이 공통적으로 설명력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신체상 관련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상의 영향요인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전체 대학생의 신체상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종단적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s

- Aubrey, J. S. (2004). *The media's impact on self-objectification, body emotions, and sexual dysfunction: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 Bergstrom, R. L., & Neighbors, C. (2006). Body image disturbance and the social norms approach: an integrative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 995-1000.
-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Unpublished test manual, Old Dominion University, Norfolk, Virginia.
- Cho, S. J. (2010). *The effect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body image an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eat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 593-623.
- Franzoi, S. L., & Shields, S. A. (1984). The body esteem scal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sex differences in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173-178.
- Gillen, M. M., & Lefkowitz, E. S. (2006). Gender role development and body image among male and female first year college students. *Sex Roles, 55*, 25-37.
- Gim, W. S., Ryu, Y. J., & Park, E. A. (2007). 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K-OBCS):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6*, 329-349.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M.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7*, 81-89.
- Hyeon, J. S. (2007). *Influence of self-esteem on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image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 107-130.
- Jeon, J., & Bae, E. J. (2007). Difference between self-esteem and family cohesiveness by university students' demographical varianc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 8, 807-817.
- Jo, H. S. (2006). Relationship between health related lifestyle and health status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 493-500.
- Jung, J., & Forbes, G. B. (2007).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among college women in Chin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rasting predictions from sociocultural and feminist theori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 381-393.
- Jung, J. E. (2010). *The effect of narcissism, perfectionism and family resilience on adolescents' body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Kang, S. Y. (2003). *Appearance complex and body-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H. K. (2007). Gender differences i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using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 198-219.
- Kim, Y. (2006).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pressure, internalization ideal beauty stereotyp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 Ko, S. J., & Chung, J. K. (1992). Beauty and oppression- the impacts of cultural myth on wome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8, 33-75.
- Lee, K. E., Kim, E. J., & Yom, Y. H. (2005). Body esteem, body figure discrepancy and depression in wome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2, 206-214.
- Lee, S. S., & Oh, K. J. (2003). Validation study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913-926.
- Lim, B. H. (2009). *The effects of adolescence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consciousnes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Lim, I. S. (2005). Men's acceptance level of body management and their appearance anx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9(6), 87-118.
- Lowery, S. E., Kurpius Robinson, S. E., Befort, C., Blanks, E. H., Sollenberger, S., Nicpon, M. F., et al. (2005). Body image, self-esteem, and health-related behaviors among male and female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 612-623.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oon, J. S. (2003). *A study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nalization and the body imag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according to the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the appear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elletier, L. G., Dion, S., & Levesque, C. (2004). Can self-determination help protect women against sociocultural influences about body image and reduce their risk experiencing bulimic symptom?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23, 61-8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an Der Velde, C. D. (1985). Body images of one's self and others: developmental and clinical significa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527-537.
- Watkins, J. A., Christie, C., & Chally, P. (2008).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body mass index in college men.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7, 95-99.

Factors Affecting Body image of Undergraduate Students

Yom, Young-Hee¹⁾ · Lee, Kyu Eun²⁾

1)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2) Professor, Kwangdo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body imag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Method:** The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with 319 undergraduate students located in 3 cities, Seoul, Gangneung and Seosa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12.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In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gender, height, weight and college major were controlled.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significantly predicted 72.3% of appearance orientatio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self-esteem significantly predicted 33.5% of appearance evaluation. Self-esteem and body surveillance significantly predicted 15.9% of health orientation. Self-esteem significantly predicted 23.3% of health evaluation. **Conclu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body image and related factors in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However, further study with a larger random sample and more a detailed research design is necessary.

Key words : Undergraduate, Body image, Self-Esteem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Kyu Eun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wangdong University
522 Naegok-dong, Gangneung city, Kangwon Province, 210-700, Korea
Tel: 82-33-649-7617 Fax: 82-33-649-7620 E-mail: lke@kd.ac.kr